

報 道 資 料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8. 3. 7

홍보팀(3441-0835)

담당부서	건설정책연구실	연구책임자	이홍일 연구위원 박철한 연구원	전화번호	3441-0611 3441-0641
------	---------	-------	---------------------	------	------------------------

제 목: 2008년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건설업 체감경기 지수 소폭 상승 불구 체감경기 여전히 부진, 건설 자재가 급등으로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 급속 악화

- 2008년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소폭(7.4p) 개선됐으나, 지수는 여전히 80선에 못 미쳐 체감경기 상황은 아직 부진한 상황임.
- 2월 경기실사지수는 전월대비 7.4p 상승한 75.0을 기록하였고, 3월 전망 지수도 91.4를 기록해 작년 6월 92.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이렇게 지수 자체가 소폭 개선된 것은 공사물량이 늘어나는 봄철이 가까워진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2월 경기실사지수 자체는 여전히 기준선인 100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작년 8월 이후 7개월 연속 80선을 밑돌고 있어 건설업체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임.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가 전월대비 14.8p 상승한 87.5를 기록하여 전체 지수 상승을 주도함.
- 대형업체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과 달리 중견업체, 중소기업체는 전월대비 소폭 상승(전월대비 3.4p씩 상승)에 그쳐 각각 79.3, 55.4를 기록함.
- 중소기업체는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여전히 50대 중반에 불과해 중소기업체의 체감경기 침체 수준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공사물량 지수는 체감경기 지수와 반대로 전월대비 3.6p 하락한 72.9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월대비 4.2p 하락해 63.3을 기록한 주택물량 지수의 침체에 기인함.
 - 일반적으로 공사물량 지수는 경기실사지수 즉, 체감경기 지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2월의 경우 체감경기 지수와 반대로 소폭(3.6p) 하락함.
 - 이는 전월대비 4.2p 하락해 63.3을 기록한 주택물량 지수의 침체에 기인함. 공종별 물량지수를 살펴보면, 토목 72.0, 주택 63.3, 비주택 74.8을 기록해 여전히 주택물량에 대해 건설업체들이 체감하는 침체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큼.
 - 주택물량 지수는 작년 5월 54.9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형업체 87.5, 중견업체 76.7, 중소기업체 51.4를 기록해 대형업체의 물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중견업체, 특히 중소기업체의 물량 침체가 심각함.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수급이 대체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지수가 33.4를 기록해(전월대비 16.5p 하락) 상황이 매우 심각함.
 - 인력수급 지수가 91.8을 기록해 대체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인건비 지수가 전월대비 6.0p 하락한 73.4를 기록하여 인건비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재비 지수가 33.4를 기록해(전월대비 16.5p 하락)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재비 지수는 2004년 4월 27.3을 기록한 이후 가장 저조한 수치를 기록함.
 - 자재수급 지수도 전월대비 22.7p나 하락한 62.7을 기록해 자재수급 상황마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전월대비 13.1p, 8.8p 하락한 70.7, 70.5를 기록해 자금관련 사정도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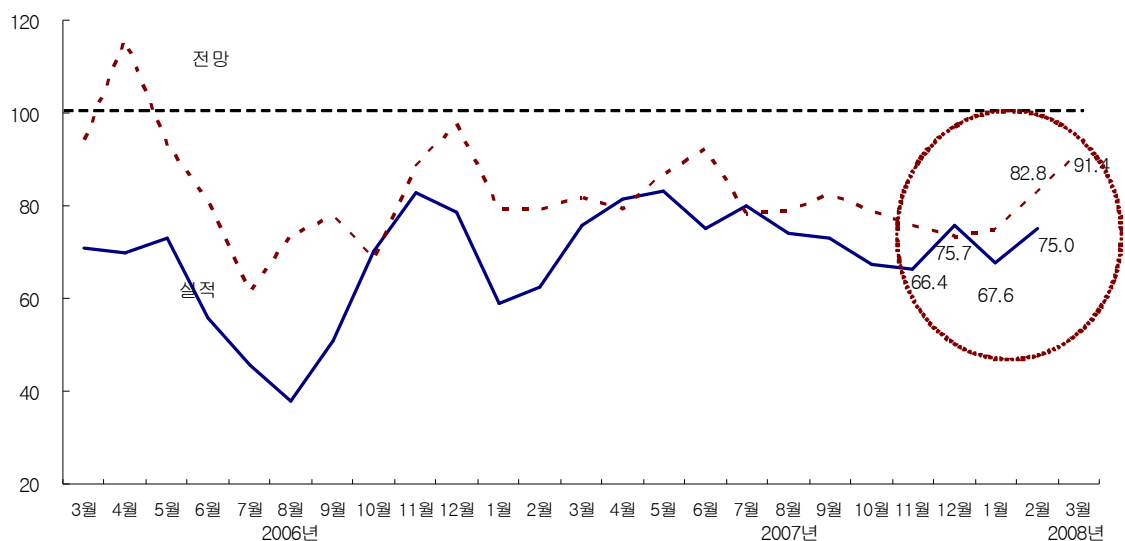
※ 붙임 : 2008년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 결과 자료.

2008년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전월대비 소폭(7.4p) 개선됐으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

- 2008년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소폭(7.4p) 개선됐으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임.
- 2월 경기실사지수는 전월대비 7.4p 상승한 75.0을 기록하였고, 3월 전망 지수도 91.4를 기록해 작년 6월 92.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이렇게 지수 자체가 소폭 개선된 것은 공사물량이 늘어나는 봄철이 가까워진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2월 경기실사지수 자체는 여전히 기준선인 100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작년 8월 이후 7개월 연속 80선을 밑돌고 있어 건설업체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임.

< 경기종합 BSI 추이 >



- 업체 규모별로는 대형업체가 전월대비 14.8p 상승한 87.5를 기록했고, 중견업체는 전월대비 3.4p 상승한 79.3, 중소기업체는 전월대비 3.3p 상승한 55.4를 기록함.
- 대형업체가 전월대비 14.8p 상승한 87.5를 기록하여 전체 지수 상승을 주도함.
- 반면, 중견업체, 중소기업체는 전월대비 소폭 상승(전월대비 3.4p씩 상승)에 그쳐 각각 79.3, 55.4를 기록함.
- 중소기업체는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여전히 50대 중반에 불과해 중소기업체의 체감경기 침체 수준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체의 지수는 작년 7월부터(12월 제외) 60미만으로 악화된 침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07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8년 1월	2월		3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81.3	83.2	75.1	80.1	74.0	73.1	67.2	66.4	75.7	67.6	75.0	82.8	91.4
규모 별	대형	91.7	92.3	83.3	100.0	91.7	100.0	77.8	70.0	81.8	72.7	87.5	72.7	100.0
	중견	86.7	90.6	76.7	81.3	76.9	64.0	73.3	73.1	76.9	75.9	79.3	100.0	96.6
	중소	63.0	64.0	63.6	55.4	50.0	52.0	47.9	54.7	67.2	52.1	55.4	75.0	75.3
지역 별	서울	89.4	94.8	87.9	92.9	85.1	88.5	76.6	75.8	82.6	76.3	86.2	80.2	99.7
	지방	71.3	66.7	57.9	60.1	56.3	48.5	50.5	51.9	61.6	53.1	55.6	85.5	7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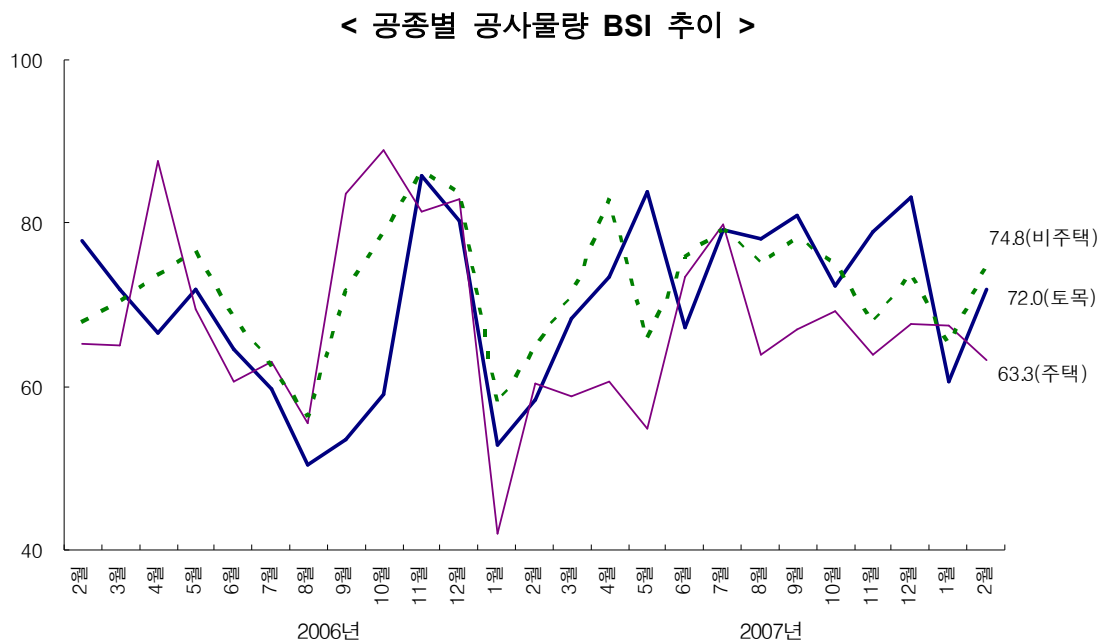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86.2, 지방업체가 55.6을 기록함.
- 서울업체의 지수는 전월대비 9.9p 상승하였으며, 지방업체의 지수는 전월대비 2.5p 상승하여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전월대비 개선됨.
- 지방업체의 지수의 상승폭은 서울업체의 상승폭의 1/4수준에 불과하며, 지수 자체도 아직 50대 중반에 불과하여 지역별 체감경기 양극화가 여전히 현상.
- 2008년 1월 건설경기 전망 지수는 91.4를 기록하여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업체 규모별로 세부적인 건설경기 전망 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건설업체는 100.0, 중견업체는 96.6, 중소기업체는 75.3으로 전망함.
- 지역별로 보면 서울업체는 99.7, 지방업체는 76.7로 전망함.

공사물량지수 전월대비 3.6p 하락한 72.9를 기록, 주택물량 침체 수준 악화

◦ 2007년 2월 공사물량지수는 72.9를 기록함.

- 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3.6p 하락하여 건설업체들이 체감하는 전월대비 공사물량의 침체 수준이 악화됨.
- 일반적으로 공사물량 지수는 경기실사지수 즉, 체감경기 지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2월의 경우 체감경기 지수와 반대로 소폭(3.6p) 하락함.
- 이는 전월대비 4.2p 하락해 63.3을 기록한 주택물량 지수의 침체에 기인함.



- 공중별로 보면 토목 72.0, 주택 63.3, 비주택 74.8을 기록해 주택물량에 대해 건설업체들이 체감하는 침체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큼.
 - 토목 및 비주택물량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11.5p, 9.7p씩 상승한 72.0, 74.8을 기록해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침체수준이 다소 완화됨.
 - 그러나, 주택물량지수가 전월대비 4.2p 하락한 63.3p를 기록함으로써 작년 5월 54.9를 기록한 이후 침체수준이 가장 심각함.
- 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형업체 87.5, 중견업체 76.7, 중소기업체 51.4를 기록해 대형업체의 물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중견업체, 특히 중소기업체의 물량 침체가 심각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72.9	87.5	76.7	51.4	84.2	52.9
	전망	90.9	100.0	100.0	70.0	99.0	76.8
토목	실적	72.0	87.5	75.9	49.3	83.2	52.7
	전망	89.3	100.0	96.6	68.5	94.0	81.5
주택	실적	63.3	87.5	53.6	46.0	72.4	48.7
	전망	78.5	100.0	79.3	52.4	91.5	55.8
비주택	실적	74.8	87.5	81.5	52.3	82.9	61.2
	전망	79.7	87.5	85.7	63.6	87.3	65.0

주 : 실적은 2008년 2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8년 3월 예측지수임.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전월보다 6.0p 하락한 84.2를 기록했고, 지방업체는 전월대비 1.2p 하락한 52.9를 기록하여 침체수준이 이전보다 더 악화됨.
- 2008년 3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90.9를 기록하여 2월보다 전월대비 공사물량 침체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인력 수급이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및 수급 상황 매우 심각,
자금 관련 지수도 전월대비 악화**

- 인력수급지수와 인건비지수 수준은 전월대비 각각 6.5p 와 6.0p 하락한 91.8과 73.4를 기록하여 전월보다 악화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다른 지수들보다는 침체수준이 양호한 편임.
 - 인력수급 지수가 91.8을 기록해 대체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인건비 지수가 전월대비 6.0p 하락한 73.4를 기록하여 인건비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사대금수급과 자금조달 지수의 경우 전월보다 각각 13.1p 와 8.8p가 하락한 70.7과 70.5를 기록하여 자금관련 사정도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급	실적	70.7	75.0	73.3	62.7	74.6	63.7
		전망	84.3	100.0	76.7	74.7	89.1	76.9
	자금조달	실적	70.5	62.5	83.3	65.3	71.3	68.1
		전망	81.8	87.5	83.3	73.3	83.6	79.1
인력	수급	실적	91.8	87.5	103.3	83.8	97.8	80.1
		전망	94.2	87.5	106.7	88.0	98.3	85.8
	인건비	실적	73.4	87.5	70.0	60.8	83.1	56.7
		전망	75.9	87.5	76.7	61.3	84.2	61.5
자재	수급	실적	62.7	87.5	50.0	48.0	72.4	47.2
		전망	57.9	85.7	36.7	49.3	64.0	49.4
	비용	실적	33.4	50.0	20.0	29.3	37.0	28.6
		전망	37.1	62.5	16.7	30.7	43.6	27.6

주 : 실적은 2008년 2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8년 3월 예측지수임.

- 자재비 지수가 33.4를 기록해(전월대비 16.5p 하락)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재비 지수는 2004년 4월 27.3을 기록한 이후 가장 저조한 수치를 기록함.
- 자재수급 지수도 전월대비 22.7p나 하락한 62.7을 기록해 자재수급 상

황마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